

상처의 아픔과 동숙하는 '연민'의 시학

《어두워진다는 것》 퍼낸 나희덕씨



나희덕씨

창작과비평사/B6변형/118면/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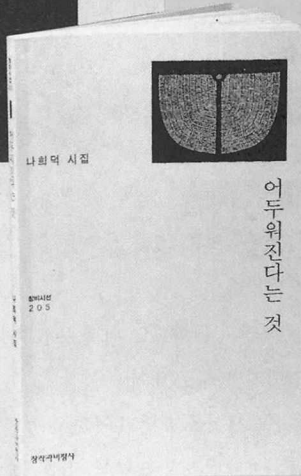
‘모성애적 따뜻함’ ‘단정한 시선’ 등은 나희덕 시인(36)에게 꼬리표처럼 붙는 말이다. 네번째 시집 《어두워진다는 것》(창작과비평사)에도 이

수식어는 여전히 유효하다. ‘단일한’ 서정적 자아의 ‘고전적’ 어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말하느냐에서는 변화와 균열의 조짐이 포착된다.

“따뜻한 시선 자체는 유지했지만, 단정하고 규격적인 틀은 많이 벗었다고 생각해요. 또 예전에는 포용해내지 못했던 삶의 음습함과 균열, 치욕과 환멸의 체험도 드러났죠. 그런데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열어갈 뿐이죠.”

‘어둠’과 ‘상처’에서 삶의 비밀을 엿듣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어둠’과 ‘소리’에 눈과 귀를 열어줬다. 아픔과 상처를 “생애의 식솔”처럼 거느리면서 시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또 다른 진실이다. 그것은 형틀로 사용되게 운명 지워진 회화나무의 슬픈 풍경(〈해미읍성에 가지 거든〉)을 보게 하고, “나를 처음으로 뚫고 지나갔던 바늘 끝 / 그 통증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오래된 수틀〉)처럼 ‘미완성’에 대한 두려움 섞인 독백도 자아낸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엇이 돼 있는 상태를 시인은 “찢김”으로 표현한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찢겨진 몸일까 / 여기에 대보고 저기에도 대보지만 / 참 알 수가 없다 / 종소리가 들리면 조금씩 아파오는 곳이



어두워진다는 것

있을 뿐”(〈흔적〉)에서처럼.

“언제부턴가 내 눈이 빛보다는 어둠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둠을 불러들이는 일에서 오히려 눈부심과 감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어두워진다는 것은 어쩌면 삶을 밝히려는 내 나름의 방식이자 안간힘입니다.”

시인의 말마따나 시적 화자는 “5시 44분의 방이 / 5시 45분의 방”에게 ‘나’를 넘겨주는 저녁에 “금이 간 갈비뼈를 흔자 쓰다듬으며”(〈어두워진다는 것〉) 존재의 거친 윤곽을 확인하거나 “소만(小滿) 지나 / 넘치는 것은 어둠뿐이라는 듯 / 이제 무성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듯 / 그들로만 이야기하는”(〈소만〉) 나무에게서 진실의 속내를 오래 들여다본다. 하지만 진실의 ‘소리’는 멀다. 쉽게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오래된 레코드처럼 ‘잠음’만 들려올 뿐이다.

“저 낡은 소리는 / 어떤 상처를 읽은 것이다 // 바늘은 / 소리가 남긴 기억을 / 그 만져지지 않는 길 / 천천히 되밟으며 간다 // 아무리 여러번 읽어도 / 상처의 길은 / 더 깊게 패이거나 덧나지 않는다 / 닳아가는 것은 / 그것을 읽는 바늘끝일 뿐”(〈축음기의 역사〉).

말은 관념의 외피일 뿐

이 시는 기록된 ‘소리’가 더 이상 소리가 아닌 ‘소음’이며 그것은 ‘상처’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소리는 자신이 태어난 ‘침묵’ 속으로 돌아갈 수 없고 소리의 기억만 더듬다 늙어간다. 이런 인식은 ‘말’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옮겨간다. 시인에

게 ‘언어’라는 외재적 형식은 언제부턴가 불충분하기 이를 데 없는 어떤 것으로 다가왔다.

“삶 자체에 대해선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일에 대해선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했죠. 소리와 침묵도 그런 반성의 연장에서 나왔어요. 소리는 조작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인위와 왜곡을 넘어서서 사물과 인간의 진실을 좀더 긴밀히 표현하고자 한 욕구가 담겼다고나 할까요?”

시인은 즉물주의, 표현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여행을 다녀와도 몇년이 지나야 그것과 관련된 뭔가를 쓸 수 있다. 막연한 인상이나 쪼가리 생각을 기워나가는 일은 ‘습작기’를 지나면서 버렸다. 풍광이 기억으로 화하고 기억이 다시 삶의 일부분으로 흡수될 때까지 충분히 묵혀둔다. 그래서 시인은 메모도 하지 않는다.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가벼운 생각이라면 버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삶 속에서 걸리지 않으면 절대 내뱉을 수 없다”는 것은 시인의 버릴 수 없는 신념이다. ‘망각’과 맞서는 창조의 불안함을 버텨야 시를 잉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인의 견결한 의지는 〈탱자〉에서 무르익는다.

“한이름 따운 탱자는 가을과 함께 썩어간다 / 과즙이 향유가 되는 건 / 놀라움이 식지 않았을 때의 일 / 검은 살을 찢고 나오려는 푸른 가시들 / 제 가시에 찢려 눈이 먼 탱자꽃 // 탱자꽃 핀다 탱자꽃 핀다 썩어 문드러진 탱자 속에서”(〈탱자〉). - 강성민 기자